G-A-11

제목	국문	최근 5년간(1995-1999) 충남지역 자궁경부 세포진 검진결과 및 이상소견 위험요인 분석			
	영문	Risk Factors of Cervical Cancer and Results of Cervix Cytology Screening in Chungnam Province, Korea, 1995-1999			
저 자 및 소 속	국문	이무식, 임연환[1], 김은영, 이충원[2]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1],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2]			
	영문	Moo-Sil Lee, Yeon-Hwan Lim[1], Eun-Young Kim, Choong-Won Lee[2]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Konyang University, Branch of Daejeon-Chungnam, The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of Korea[1],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School of Medicine, Keimyung University[2]*			
분야	보건관리 [모자보건]	발표자	이무식 [일반회원]	발표형식	포스터
진행상황	연구완료				

1. 목적

본 연구는 지역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자궁경부암 세포 도말검사법의 사업결과를 평가하고 정확도를 추정하고, 추적조사된 검진자를 대상으로 인구학적 특성 및 분만, 유산 요인과 자궁경부 세포 도말검사 결과와의 관련성을 도출함으로써 자궁경부암 조기발견 사업의 지역보건계획 수립 및 지역보건 정책을 입안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2. 방법

1995 년 이후 5 년 동안에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23 세 이상 여성 146,848 명을 대상으로 대한가족보건협회 대전·충남지부 및 충청남도의 자궁경부 세포도말 집단 검진을 수진한 여성의 재검 및 2차 정밀검사 등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3. 결과

연도별로 1 차 검진결과 이상자 율은 1995 년 0.68%, 1996 년 0.59%, 1997 년도 0.70%, 1998 년 0.56%, 1999 년 0.62%로 전체적으로 0.63%로 연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시 재검 이상의 이상자율은 0.63%였으며, 3 군이상을 자궁경부암 전구병변으로 추정할 경우의 조 율병율은 0.61%였으나 1 차검진 및 2 차 검사를 종합한 결과에서는 이형성증 이상일 경우 1,000 명당 2.2 명이었다.
세포도말 검사의 정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위양성율을 추정해 본 결과, 비정상을 자궁경부염 이상의 단계를 양성으로 보았을 때, 즉시재검 판정은 위양성율이 44.0%, 3 군은 56.2%, 4 군은 26.9%, 5 군은 19.0%로 나타났으며, 비정상을 이형성증 이상 단계로 한 경우에는 즉시재검은 68.0%, 3 군 75.3%, 4 군 46.2%, 5 군 47.6% 등이었다.

4. 고찰

분석결과 위양성율은 다소 높아 여러 요인들이 이러한 결과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강구되어야함을 시사하였다. 자궁경부 검사결과 비정상의 위험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변수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 학력, 행정구역이 유의한 기여변수로 선정되었는데 기존의 연구결과와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대표성이 적고 적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해석에 다소 제한적일 수 밖에 없어 시험적인 연구의 시도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